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1)」 결과를 분석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갈등 정도는 정서적 관점(위협 등), 문화적 차이(종교, 언어, 피부색 등), 한정된 자원 경쟁(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 향후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시기 등은 국내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양적인 조절정책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는 질적인 사회통합정책도 긴요함

1. 배경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1983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trap of low fertility)'에 빠져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다시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국내로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유입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음

· 고학력화 추이에 따른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는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로 인한 만혼화와 독신화로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남성들과 결혼을 목적으로 국제이주여성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유입 등 일련의 사회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연계시키고 있음.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함

- 그러나 외국인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부속되는 현상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현상으로,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유입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빈곤화, 사회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간 갈등 내지 비통합성은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정책의 성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

- 본고는 외국인·이민자의 유입 역사가 짧아 사회갈등 정도를 측정할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본 분석은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의 일환으로 실시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함. 동 조사는 지역층화계통추출법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선정한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에 의해 실시되었음

2.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가.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정서적 갈등에 대한 인식

- ‘외국인·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9%(전적 동의 8.4% 포함)가 동의함(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는 특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아동들이 일부 지역에서 전체 학생들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1〉 “외국인·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8.9	27.2	55.5	8.4	100.0	(1,000)
연령($\chi^2=16.4$)						
20대	11.4	24.4	54.0	10.2	100.0	(176)
30대	11.7	23.4	59.3	5.6	100.0	(214)
40대	7.3	33.2	52.7	6.8	100.0	(220)
50대	8.1	26.3	57.0	8.6	100.0	(186)
60대이상	6.4	27.9	54.4	11.3	100.0	(204)

주: *p<0.05, **p<0.01, ***p<0.001(이하 표 동일)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64.0%(전적 동의 7.5% 포함)가 동의함(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는 최근 외국에서 이민자 등의 대량 유입 및 집단화로 인하여 폭동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였음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2〉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6.9	29.1	56.5	7.5	100.0	(1,000)
연령($\chi^2=14.6$)						
20대	6.8	33.0	52.3	8.0	100.0	(176)
30대	8.9	27.6	57.9	5.6	100.0	(214)
40대	7.7	31.8	53.6	6.8	100.0	(220)
50대	2.7	28.0	62.4	7.0	100.0	(186)
60대이상	7.8	25.5	56.4	10.3	100.0	(204)

- 이상 정서적 갈등과 관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민자의 증가가 학교, 사회 등에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을 엿볼 수 있음

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자원 갈등에 대한 인식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해 응답자의 50.3%(전적 동의 10.7% 포함)가 동의함

- 고연령층일수록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60대 이상(65.7%), 50대(51.6%), 40대(47.8%), 30대(43.5%), 20대(42.6%) 등의 순으로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전적 동의’ 비율은 15~20%로 비교적 높음
 - 이는 현재 은퇴를 앞두고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등에 있어서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3〉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1.0	38.7	39.6	10.7	100.0	(1,000)
연령($\chi^2=54.1^{***}$)						
20대	13.6	43.8	39.2	3.4	100.0	(176)
30대	11.2	45.3	36.0	7.5	100.0	(214)
40대	10.5	41.8	40.5	7.3	100.0	(220)
50대	9.7	38.7	37.1	14.5	100.0	(186)
60대이상	10.3	24.0	45.1	20.6	100.0	(204)

-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3%(전적 동의 6.6% 포함)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로는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을 사회약자로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이른바 ‘복지적인 마인드(mind)’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 고연령층일수록 동 문항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54.9%가 동의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둘러싼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함
 - 이는 복지의 주 수혜대상인 고연령층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복지혜택의 감소 내지 상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6	49.1	30.7	6.6	100.0	(1,000)
연령($\chi^2=55.8^{***}$)						
20대	14.8	59.1	23.9	2.3	100.0	(176)
30대	18.2	50.5	29.0	2.3	100.0	(214)
40대	13.6	52.3	26.4	7.7	100.0	(220)
50대	10.2	50.5	31.7	7.5	100.0	(186)
60대이상	10.8	34.3	42.2	12.7	100.0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2%(전적 동의 7.1% 포함)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감소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는데, 주된 이유로는 외국인 등이 종사하는 직종과 내국인이 종사하는 직종 간의 분리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동 견해에 대한 동의 비율이 60대 이상 51.0% 등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자리 갈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이 종사하는 직종들은 외국인 등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5〉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9	48.8	30.1	7.1	100.0	(1,000)
연령($\chi^2=35.2^{***}$)						
20대	13.6	58.5	22.2	5.7	100.0	(176)
30대	15.0	53.7	27.1	4.2	100.0	(214)
40대	16.8	48.2	28.2	6.8	100.0	(220)
50대	15.1	44.3	34.1	6.5	100.0	(186)
60대이상	8.8	40.2	38.7	12.3	100.0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8%(전적 동의 3.6% 포함)만이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외국인 인력 등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간주됨
- 다만, 동 견해에 대해 60대 이상의 41.4%가 동의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일자리 갈등, 임금 감소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 일부는 외국인 유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 한정된 자원을 내국인 대신 차지하는 대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표 6〉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24.0	57.2	15.2	3.6	100.0	(1,000)
연령($\chi^2=94.0^{***}$)						
20대	31.3	56.8	9.1	2.8	100.0	(176)
30대	23.4	64.5	8.9	3.3	100.0	(214)
40대	25.0	62.7	10.5	1.8	100.0	(220)
50대	22.0	61.8	14.5	1.6	100.0	(186)
60대이상	19.2	39.4	33.0	8.4	100.0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27.7%(전적 동의 4.8% 포함)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이유는 아직 외국인·이민자의 규모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5%)이 아직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됨

○ 한편,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는 60대 이상 42.7% 등 고연령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의 보수적인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표 7〉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20.7	51.6	22.9	4.8	100.0	(1,000)
연령($\chi^2=61.9^{***}$)						
20대	21.6	60.2	15.3	2.8	100.0	(176)
30대	21.5	61.2	14.0	3.3	100.0	(214)
40대	21.8	53.6	21.4	3.2	100.0	(220)
50대	18.8	45.2	32.3	3.8	100.0	(186)
60대이상	19.6	37.7	31.9	10.8	100.0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체의 36.8%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낮은 동의 정도는 공단주변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38.6%)를 제외하면 동의정도는 60대 이상 58.3% 등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이는 고령층의 보수적인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대에서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결혼을 앞둔 세대로서 한정된 주거자원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을 짐작케 함

〈표 8〉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주거문제 악화	14.0	49.2	31.1	5.7	100.0	(1,000)
연령($\chi^2=79.4^{***}$)						
20대	15.9	45.5	33.5	5.1	100.0	(176)
30대	14.0	63.6	17.3	5.1	100.0	(214)
40대	18.6	53.6	25.9	1.8	100.0	(220)
50대	10.8	50.5	32.8	5.9	100.0	(186)
60대이상	10.3	31.4	47.5	10.8	100.0	(204)

□ 자원 관련 국민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이민자 유입과 관련한 갈등 유발 가능성은 일자리 경쟁(동의 정도 50.3%), 복지혜택 감소(37.3%), 임금 감소(37.2%), 주거문제 악화(36.8%), 정치력 약화(27.7%), 경제성장 약화(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이민자와 가장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부문에서 갈등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복지, 임금, 주거 등은 복지적 마인드, 내국인과의 직종 분리, 외국인·이민자의 주거의 비집단화로 인하여 갈등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 규모가 증가한다면 갈등 유발 가능성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로서 정치와 경제성장과 관련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는 인식이 보다 높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고령층일수록 위 견해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연령계층이 일자리, 복지 등 자원을 둘러싸고 외국인·이민자와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보수적·배타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다. 외국인·이민자와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전적 동의 10.2%)가 동의하고 있어, 언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갈등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러한 동의정도는 60대 이상 62.7% 등 20대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높아 언어문제는 고연령층에게서 더 큰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함

〈표 9〉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8.9	33.3	47.6	10.2	100.0	(1,000)
연령($\chi^2=29.7^{**}$)						
20대	13.6	27.8	46.6	11.9	100.0	(176)
30대	8.9	36.9	45.8	8.4	100.0	(214)
40대	8.2	35.9	48.6	7.3	100.0	(220)
50대	5.9	36.0	52.2	5.9	100.0	(186)
60대이상	8.3	28.9	45.1	17.6	100.0	(204)

□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8%(전적 동의 11.3%)가 동의하여, 예상외로 종교의 차이가 외국인·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사회 비통합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함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전 연령계층에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10〉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1.1	38.1	39.5	11.3	100.0	(1,000)
연령($\chi^2=9.4$)						
20대	11.9	38.6	37.5	11.9	100.0	(176)
30대	11.2	41.1	38.3	9.3	100.0	(214)
40대	11.4	41.4	39.1	8.2	100.0	(220)
50대	11.3	31.7	43.0	14.0	100.0	(186)
60대이상	9.8	36.8	39.7	13.7	100.0	(204)

○60대 이상에서 55.9%로 동의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51.7%), 50대(45.7%), 30대(45.3%), 40대(40.0%) 등의 순임

〈표 11〉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피부색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9	38.6	41.4	6.1	100.0	(1,000)
연령($\chi^2=26.2^*$)						
20대	19.3	29.0	44.3	7.4	100.0	(176)
30대	13.1	41.6	39.7	5.6	100.0	(214)
40대	13.6	46.4	37.3	2.7	100.0	(220)
50대	14.0	40.3	39.8	5.9	100.0	(186)
60대이상	10.3	33.8	46.6	9.3	100.0	(204)

- 현재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수용에 대한 배척 정도(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하지 않음 비율)는 단순비숙련 외국인근로자(35.1%)와 국제결혼이민자(34.1%)가 상대적으로 높음. 전문기술 외국인근로자도 2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7.1%로 가장 낮음

- 단순비숙련근로자의 배척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앞서 단순기능직종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정도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기술직종의 일자리도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배척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이들이 정주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복지, 주택 등 일자리 이외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 발생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임

- 유학생에 대한 배척정도가 낮은 이유로는 이들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사회자원에 대해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외국인·이민자의 출신대륙별로 배척정도는 아프리카가 39.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주·유럽·오세아니아’ 24.2%, 아시아 16.5% 순으로 나타나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 피부색, 문화적 차이 등과 연계될 수 있음

〈표 12〉 외국인·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외국인·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국제결혼 이민자	5.1	29.0	60.2	5.7	100.0	(1,000)
단순비숙련 외국인근로자	5.1	30.0	60.5	4.4	100.0	(1,000)
전문기술직 외국인근로자	4.4	20.2	61.0	14.4	100.0	(1,000)
외국인 유학생	1.0	6.1	66.9	26.0	100.0	(1,000)
외국인·이민자 출신국별 수용성						
아시아계	2.1	14.4	78.6	4.9	100.0	(1,000)
미주·유럽계·오세아니아	3.3	20.9	70.4	5.4	100.0	(1,000)
아프리카계	9.3	30.1	57.6	3.0	100.0	(1,000)

- 외국인·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원과 달리 선천적인 언어, 종교,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갈등 유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그만큼 갈등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음

- 유입 당시 신분이나 출신국가도 갈등유발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

3. 시사점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내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 인식은 외국인이 위협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서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종교, 언어, 피부색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인식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자원관련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비율도 비교적 높음
 - 이러한 갈등은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유형 중 국제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특히 단순기능근로자)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실제 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배척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정서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 인식 정도가 높다는 점은 순혈주의가 지배적인 한국의 특수성에 비추어보아 그만큼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갈등이 치유하기 어렵고 치유할 수 있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함. 또한,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이 상당 수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요컨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유입 규모가 총인구의 2%대로 이민 역사가 긴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본격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없었으나, 향후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외국인 · 이민자의 국내 유입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이 동시에 나타날 것임. 문제는 어떻게 외국인 · 이민자 유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임
 - 궁극적으로 외국인 · 이민자의 유입이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과 규모 및 시기를 국내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 · 이민자 유입의 양적인 조절정책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도 긴요함

이삼식(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문의(02-380-822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